



TEXAS CIVIL RIGHTS PROJECT

정의를 위한 분투

Texas Civil Rights Project (TCRP)의 사명은 지역사회 교육과 소송을 통해서 인종,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본 기관은 평등을 촉진하고, 정의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TCRP에서는 직접적인 법적 변호, 지역사회 교육, 대중 캠페인, 약하고 피해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교육과 옹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CRP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권리. TCRP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라 공적, 사적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교육과 활동을 하는데 선구적으로 일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TCRP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 법에 따라 카운티의 감옥과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자살 문제, 정신 건강에 관련된 요청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조치,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HIV 약물 치료에 대한 것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재범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TCRP는 시각 장애를 가진 유권자를 위한 투표접근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델을 준비하였으며, 텍사스 내에서 이 법을 지키도록 권장하는 지역캠페인을 19차례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제적 정의. TCRP는 농장 노동자들과 기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하여 작업장에서의 불법행위들을 교정하고 있으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임금지불요구, 직장 선임이나 지배인에 의한 성적 괴롭힘과 작업 현장의 위생상태에 대한 진정, 근로 조건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할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인종차별. TCRP는 인종과 민족적 차별에 의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 캠페인을 통하여, 은행, 음식점, 숙박업소, 그리고 다른 공공 편의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차별을 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미국인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단일구성학교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MALDEF과 LMLAC와 연대하였고, 텍사스 의회와 텍사스 입법 지구를 재구역화 함으로써 소수자 시민들의 투표권과 표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부터 TCRP는 차별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남아시아, 이슬람 교도, 아랍 등의 배경을 가진 시민과 영주권자와 대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사법체계. TCRP는 텍사스 내 모든 지역에서 과도한 무력행사, 부당한 체포, 영장 없는 가택 수색과 같은 경찰의 부당한 조치에 의한 희생자를 돕고 있습니다. TCRP는 NAACP를 도와미 법무부에 오스틴 경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무력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연방기금 지원을 보류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또한 TCRP는 주 내의 카운티 교도소 재소자의 자살을 방지하고, 의학적 주의를 요하는 청각 장애인에게 통역을 제공하며, 재소자를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며, HIV 약물치료를 제공하며,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재소자가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TCRP는 오랫동안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 전역에서 일어난 이민자 권리를 위한 항의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과도한 무력행사, 학대, 부당한 체포를 당한 사람들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TCRP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할 때 경찰관이 폭력을 사용한 사례를 중재하며 합의 사항의 일부로서 모든 El Paso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정헌법 제 1조와 적절한 무력사용에 대한 재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하여 질문이나 정보는, 512-474-5073(교환 102) Amanda Hill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